
‘설마, 얼마’의 어원

김무림 · 강릉대학교 교수

1.

현대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마’와 ‘얼마’는 품사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역사를 소급하여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단어 형성 과정에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설마, 얼마’에 대한 풀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마, 얼마’의 뜻풀이
 - 설마: 아무리 그러하기로,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쓴다. = 설마 하니 · 설마한들. ¶ 그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설마** 도둑질이 야 하겠습니까?
 - 얼마: ① (의문문에 쓰여)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 = 기분(幾分) · 기허(幾何) · 기허(幾許). ¶ 이 구두의 값이 **얼마**요?
② 정하지 아니한 수량이나 정도. ¶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③ 뚜렷이 밝힐 필요가 없는 비교적 적은 수량이나 값 또는

정도. ¶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써라.

사전의 뜻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마’는 부사이고 ‘얼마’는 명사이며, 그 의미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어의 형태를 중세국어로 소급하여 그 용법을 관찰하면 어원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의미상으로도 서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마’와 ‘얼마’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아울러 중세국어 이후에 생긴 이들 어휘의 용법 및 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대국어의 ‘설마’와 ‘얼마’는 중세국어의 형태로는 ‘현마’와 ‘언마/언머’로 소급됩니다. 우선 중세국어에서 이들 어휘의 용법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세국어에서 ‘현마’의 용례
 - 如來스기 현맛(현마+스) 衆生이 머리 좃스바뇨(월인석보 2-48)
↳, 여래께 얼마의 중생이 머리 조아렸느냐?
 - 현마 七寶로 꾸며도 도타 호리잇가(월인천강지곡 상-44)
↳, 설마(아무리) 칠보로 꾸며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 현마 스라도 술이디 아니호고(월인석보 2-28)
↳, 아무리 살라도 살라지지 아니하고

- 중세국어에서 ‘언마/언머’의 용례
 - 언맛(언마+스) 福을 어드리잇고(법화경언해 6-3)
↳, 얼마의 복을 얻겠습니까?
 - 深谷深山에 언마 저프거시뇨(월인천강지곡 상-44)

- ↳ 심곡심산에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 福을 언매나(언마+나) 得히리잇고(석보상절 19-1)
 - ↳ 복을 얼마나 득하겠습니까?
- 네 언머를 줄다(번역노걸대 하-27)
 - ↳ 네가 얼마를 주겠느냐?

위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마’와 ‘언마/언머’는 기본적으로 현대 국어의 ‘얼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마’는 이미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의 ‘설마, 아무리’ 등에 해당하는 부사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세국어에서 ‘언매나’와 같은 경우는 명사 ‘언마’에 서술격 조사 ‘-이나’가 붙은 형태로서 현대국어의 ‘얼마나’에 해당하지만, 현대국어의 ‘얼마나’는 하나의 부사로서 굳어져 쓰이고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현마, 언마’는 어원적으로 ‘현+마, 언+마’로 분석되는데, 다음과 같이 ‘현’은 단독으로 쓰인 용례를 찾을 수 있지만, ‘언’은 모음이 부가된 형태인 ‘어느/어누/어느’ 등으로 쓰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어느, 어누, 어느’ 등의 형태 변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형태의 기본 형태는 ‘언’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세국어에서 ‘현, 어느/어누/어느’의 용례
 - 현 劫 지나 아모 세계에 부터 드와야(능엄경언해 1-17)
 - ↳ 뭇 겁 지나 아무 세계에 부처 되어
 - 어늬샤(어느+나) 못 도히니잇가(석보상절 6-35)
 - ↳ 어느 것이야말로 가장 좋습니까?
 - 어느 누를 더브르시려뇨(월인천강지곡 상-19)
 - ↳ 어느 누구를 더부시겠소?
 - 國人 ㅼ들 어느 다 슬바리(용비어천가 118장)
 - ↳ 국인 뜻을 어찌 다 사되리?
 - 어누 나라해 가샤 나시리잇고(월인석보 2-11)

↳ 어느 나라에 가시어 나시겠습니까?

▪ 聖人 神力을 어느 다 슬파리(용비어천가 87장)

↳ 성인 신력을 어찌 다 사되리?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현’은 현대국어의 ‘몇’에 해당하는 말로서 용법이 단순하지만, ‘어느/어누/어느’ 등은 대명사(어느 것), 관형사(어느), 부사(어찌) 등의 세 가지 의미로 쓰여서 문법 범주가 넓었습니다. 아무튼 중세국어의 ‘현’과 ‘어느/어누/어느’는 기본적으로 현대국어의 ‘몇’과 ‘어느’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 둡니다.

이제 ‘현마, 언마’의 공통 요소인 ‘마’에 대해서 언급할 차례입니다. 다만 ‘언머’의 ‘머’를 제외한 것은 ‘언마’에서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에 의해 ‘언머’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원적으로 ‘언머’는 ‘언마’에서 발달한 형태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중세국어에서 ‘마’는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의존적인 형태로 쓰였으며, 그 의미는 ‘정도(程度), 분량(分量), 만큼/만치’ 등에 해당됩니다.

■ 중세국어에서 ‘마’의 용례

▪ 사르미 무레 사니고도 중싱만도 몬호이다(석보상절 6-5)

↳ 사람의 무리에 살고 있어도 짐승만도(짐승만큼도) 못합니다.

▪ 劫火를 몇 만 디내야뇨(남명집언해 상-31)

↳ 겁화를 어느 만큼 지내었느냐?

위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마’는 조사나 의존명사로 쓰였으며, 현대국어의 ‘만, 만큼, 만치’에 해당됩니다. 물론 현대국어의 ‘만, 만큼, 만치’에도 중세국어의 ‘마’가 들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의 의미를 헤아린다면, ‘현마, 언마’는 기본적 의미가 ‘어느 만큼, 얼마만큼’ 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부사적 의미로 쓰인 경우는 이러한 기본적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언마’는 부사적 용법, 즉 ‘얼마나’의 뜻으로 쓰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대국어에 이르도록 그 기본 의미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마’는 중세국어에서도 이미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부사적 의미로도 그 용법이 충분히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현대국어에서 이들의 용법과 함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근대국어에서 ‘현마/혈마/설마’의 용례
 - 현마 내의 익미코 설위흐는 줄을 모른다(계축일기)
↳ 설마 나의 억울하고 서러워하는 줄을 몰랐느냐?
 - 혈마 고살리를 먹그려 캐랴시라(고시조)
↳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 캐었으랴?
 - 설마 업스랴 흐더라(고시조)
↳ 설마 없으랴 하더라.

- 근대국어에서 ‘언마/언머/얼머/얼매’의 용례
 - 언매나(언마+나) 만흐뇨(어록해 33)
↳ 얼마나 많으냐?
 - 이 류청 비단이 자히 언머고(노걸대언해 하-25)
↳ 이 유청(柳靑) 비단이 한 자에 얼마나?
 - 이 비단을 얼머에 풀려 흐는다(박통사언해 중-37)
↳ 이 비단을 얼마에 팔려 하느냐?
 - 사람이 얼매 오랜고(염불보권문 11)
↳ 사람이 얼마나 오래인가(오래 살 수 있는가)?

근대국어에서 ‘현마/혈마/설마’의 의미는 위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현대국어의 ‘설마’에 해당하여 완전히 부사 용법으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마/언머/얼머/얼매’는 비록 형태상의 변화는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중세국어의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대국어에서 ‘얼마’라는 형태는 『염불보권문』에 나타나는 ‘얼매’를 고려할 때, ‘얼마’라는 형태가 근대국어 시기에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국어에 들어서 이들 어휘는 ‘설마’와 ‘얼마’가 표준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6, 문세영)에 등재된 표제어 ‘설마’와 ‘얼마’는 앞에 보인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의 뜻풀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현마, 언마’에서 ‘혈마, 얼마’가 되는 것은 모음과 양순음 ‘ㄹ’ 사이에서 ‘ㄴ’이 ‘ㄹ’로 바뀐 음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ㄴ’이 ‘ㄹ’로 바뀌게 되는 것은 활음조(滑音調) 현상과 같은 일종의 동화 현상이지만, 음운론적인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곤난(困難)’이 ‘곤란’이 되고, ‘회녕(會寧)’이 ‘회령’이 되며, ‘점다(少), 읊다(吟)’에서 ‘ㄹ’이 덧생겨 ‘젊다, 읊다’ 등이 되는 것 등이 ‘ㄹ’과 관련된 일종의 활음조 현상이지만, 음운사적으로 필연적인 변화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현대국어의 ‘설마’는 ‘현마 > 혈마 > 설마 > 설마’에 의한 일련의 음운 변화를 겪었으므로, 유음화, ㅎ-구개음화, 반모음 탈락 등의 음운 과정이 형태 변화에 작용한 것입니다. ‘혈마’에서 ‘설마’가 되고, 다시 ‘설마’가 되는 것은 일부 방언에서 ‘형(兄)’이 ‘성’이 되고, 이어서 ‘성’이 된 것과 그 이치가 같습니다. ‘혈마 > 설마 > 설마’의 변화를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내면 ‘hjelma > fjelma > fjalma > sælma’의 음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모음 ‘l [j]’ 앞에서 후음 ‘ㅎ[h]’이 구개음 ‘s [ʃ]’이 되고, 다시 구개음 ‘s [ʃ]’ 뒤에서 변별성을 잃은 반모음 ‘l [j]’가 탈락하게 되며, 반모음 ‘l [j]’를 잃은 구개음 ‘s [ʃ]’은 결국 치경음 ‘s [s]’의 제자리로 회귀하게 되는 흥미로운 연쇄적 순환 과정인 것입니다.

3.

지금까지 '설마'와 '얼마'에 대한 어원적 풀이와 함께 이들 어휘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설마'와 '얼마'의 중세국어 형태인 '현마'와 '언마'는 어원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이며, 'ㄴ'이 'ㄹ'로 변화하는 음운 과정도 함께 겪은 이웃사촌과 같은 어휘입니다. 그러나 '현마'는 설의법(設疑法) 용법에 자주 쓰이면서 일찍부터 부사화의 과정을 밟아 근대국어 이후부터는 완전히 부사로 정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마'는 '현마 > 혈마 > 설마 > 설마'에 의한 음운 변화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는 중세국어의 '언마'로부터 '얼마'가 되었으므로, 단지 'ㄴ'이 'ㄹ'로 되는 음운 변화만 입었을 뿐이며, 그 기본적 용법은 중세국어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예외적인 부사적 용법이 있었지만, 의미적으로 원래의 자리를 잃지 않은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와 '얼마'는 비록 출발점에서는 그 자격이 같았지만, '설마'는 부사이고 '얼마'는 명사인 까닭으로 문장 내에서 이들의 위상(位相)은 같지 않습니다. 즉 통사상으로 '설마'는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수식언 노릇을 하지만, '얼마'는 조사를 거느리는 체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원적으로 '설마'와 '얼마'는 동격(同格)의 사촌 간으로 출발하였으나, 이제 는 주종(主從) 관계와 같은 다른 처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서울: 한국문화사.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서울: 태학사.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전은 본문을 참조.